

손위 형제의 성별, 친밀감과 여대생의 성역할정체감의 관계: 손아래 여자 형제를 대상으로

김 민 정 이 기 학[†]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형제관계와 여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의 관계를 손위형제의 성별과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형제 중 둘째에 해당하는 여자 대학생 161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손위남자형제가 있는 참가자는 85명, 손위여자형제가 있는 참가자는 76명이었다. 한국성역할검사(KSRI)와 형제관계척도(SRQ)를 사용하여 성역할정체감과 형제간의 친밀감을 측정하였다. 이원변량분석으로 손위형제의 성별과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에 따른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성에 있어서는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의 주효과와 손위형제 성별과 친밀감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성에 있어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손위형제 성별에 따른 집단 내에서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남자손위형제를 가진 집단에서 친밀감은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자손위형제를 가진 집단에서 친밀감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 형제와의 친밀감이 여자 대학생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여자 대학생, 형제성별, 친밀감, 성역할 정체감

김민정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이기학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기학,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전화 : 02-2123-2445 E-mail: khlee2445@yonsei.ac.kr

남성성과 여성성은 개인의 적응을 위해 필요 한 개별적인 특성이라는 Bem의 주장으로 심리적 건강을 성역할정체감으로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 들이 있었다.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연구들은 성 역할정체감이 개인의 행동이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Bem, 1975; Spence, Helmreich, & Stapp, 1975).

성역할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들은 성역할정체감이 여성의 적응을 이해함에 있어서 보다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Whitley(1983, 1985) 는 성역할과 자존감에 관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설명하는 것은 남성 성 모델이라고 하였다. 또한 Antill과 Cunningham (1979)은 남성성이 자존감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 인임을 밝혔으며 Hilgenkamp와 Livingston(2002)은 남성적인 특징들이 성공에 대한 지각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은 여성적이고 남성은 남성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고정관념을 경직되게 수용하는 것은 여성의 심리적 건강을 저해하는 일임을 시사한다.

또한 진로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Wolfe와 Betz (1981)는 남성성이 높은 여성들이 여성성이 높은 여성들보다 그들의 직업적 흥미와 일치한 진로 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여 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직업 선호와의 관계를 시사하였다. 또한 이재창, 유계식(1997)은 여대생의 남성 성은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학교 적응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연구를 보여주었으며, 김희정 (1986)은 성역할정체감은 남학생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여학생의 직업선택에 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정영희, 2002 에서 재인용).

한편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 Sanfilipo(1994)는 높은 여성성은 여러 상황에서의 우울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Baucom과 Danker-Brown (1984)은 남성성이 낮고 여성성이 높은 여성은 남성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오랫동안 남성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져온 문화적 풍토를 고려해 볼 때 다변적이고 경쟁적인 현 사회구조는 남성적인 특성들, 즉 도구적이고 기능적인 특성들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적인 특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성은 현대 사회에서 그다지 기능적이지 않은 특성으로 이해되며 평가 절하되기 쉽다(최인아, 1988). 이에 대해 유가효 (1994)는 성고정관념의 수용에 남녀의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능력을 발휘하여 경쟁하는 것이 미덕 으로 인정되는 현대에도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게 ‘여성적’이라 규정한 특성만을 갖도록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여성도 역시 도구적, 기능적 특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적응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성역할 기대에 대한 지나친 동일시는 여성에게 있어서 더욱 역기능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 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에게 남성성과 여성성의 발달이 더욱 필요하다.

현대 사회는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활동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성 스스로도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바람직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기혼 여성의 심리적 건강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되는 것이 취업여부(최성희, 2001)라는 점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의 적응에 있어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중요한 변인이며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의 적응을 돋기 위해 여성의 성 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성역할정체감이란 정체감의 독특한 측면으로서 사회가 그 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특성이나 태도 혹은 흥미와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 즉 온화함, 양육성 등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여성적 성역할정체감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남성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 즉 공격성, 독립성 등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남성적 성역할정체감을 가졌다고 간주된다(김태련, 장휘숙, 1987). Bakan에 의하면 남성성은 자용감과 일치하는데 이는 자기 주장, 자기 확장, 독립성, 지배하고자 하는 충동 등의 개인 보존적 특질로 표현된다. 한편 여성성은 유대감과 일치하며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 즉 접촉, 개방성, 결합, 독립성 결여, 비계약적 협동 등의 상호관계적 특질로 표현된다.

성역할정체감의 형성을 설명하는 이론은 전통적으로 동일시이론, 사회학습이론, 그리고 인지 발달이론이 있다. 동일시이론은 전통적인 Freud의 방어적 혹은 공격적 동일시이론과 발달적 동일시이론이 있다. 방어적 동일시는 어머니에게 리비도적인 애정을 가진 남아가 아버지를 경쟁자로 보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 아버지의 능력, 가치, 태도 등을 모방하여 남성성을 습득한다는 개념이다. 한편 여아에 대해서는 유아성 동일시를 상정하여 여아가 양육자인 어머니에 대해 의존하고자 하며 어머니를 상실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 좌절, 공포를 느껴 어머니를 동일시한다고 설명하였다. 발달적 동일시란 아동이 자기가 사랑하고 동경하는 사람의 행동을 재현하고자 하며 따라서 모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동일시를 조장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대상에 대한 적대감이 동일시를 조장한다는 방어적 동일시와 반대가 되는 개념이다(최보가, 1983).

사회학습이론은 최근 연구들에서 개인의 성역할정체감 획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성격은 사회로부터 받는 처벌과 보상, 모델링, 대리학습, 일반화 등에 의해서 형성된 습관화된 행동이다. 이런 보상은 반드시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여 대리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성역할 정체감도 이러한 원리로 형성된다고 본다. 남자아이는 의존적인 행동에 대해서 덜 보상을 받게되고 여자아이는 신체적 공격에 대해 덜 보상을 받게되어 점차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난다고 한다(Mischel, 1966). Serbin, Powlishta, 그리고 Gulco(1993)도 그들의 연구에서 아동의 성역할 습득에 있어서 사회학습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서는 아동 자신의 자연스러운 일련의 인지 발달에 의해 성 역할을 지각, 습득하게 된다고 본다. Kohlberg는 아동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생물학적인 본능이나 문화 규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동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지적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즉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성을 인식하고 이에 알맞은 행동을 선택하여 습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성역할정체감은 자아정체감의 중요한 부분이며 개인의 행동 및 자아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Block, 1973).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입준비라는 다소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한 자아정체감 확립의 시기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임재련, 1988). 따라서 대부분이 대학 입학 이후에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며 성역할정체감의 문화도 늦어져 대학생이 된 후에 안정된다(김영희,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성역할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성역할 교육과 가정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성역할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성평등 역할교육을 실시한 경우 아동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서영숙, 1986; 이미숙, 1992에서 재인용)과 여대생에게 의식향상훈련을 시킨 결과 양성공존성이 증가함(정소영, 1985) 등을 보여주었고, 이는 역할 모델을 통해 성역할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환경적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의 구조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손위 형제의 성별과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갖는 것처럼 형제관계도 가족 속에서의 역할을 습득하게 된다(유영주, 1989). 대부분의 형제는 거의 매일 만나므로 많은 접촉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주로 형제의 출생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출생순위에 따른 형제관계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교사로서의 역할은 손위 형제에게 부여되며(Azmitia & Hesser, 1993) 손위 형제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며 모방하려는 학습자의 태도가 손아래형제에게서 발견된다(Lamb, 1978)고 보고한다. Abramwitch와 Corter, Lando(1986)도 손위 여자형제가 교사와 보호자의 역할을, 손아래 여자형제가 학습자와 추종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손위형제에게서보다 손아래형제에게서 모방행동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고한다(김상희, 1985). 따라서 모방과 동일시를 통해 손아래 형제는 손위형제의 태도와 행동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손위형제가 손아래형제의 교사 역할을 한다는 점에 더해서, Hall과 Lindzey(1965)는 손아래 형제들은 손위 형제의 성에 따른 특수한 특성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어린 형제의 성격특성에 손위형제의 성별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Rust, Golombok, Hines, Johnston, 그리고 Golding(2000)의 연구에서도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남자 손위형제를 가진 경우 남성성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으며, Hodges(1961)의 연구에서도 여자 손위 형제를 가진 남아는 종종 또래들 사이에서 여자 같은 아이로 통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손위형제의 성별이 손아래형제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지지하였다. 이는 손아래형제는 손위형제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이 많으며 손위형제의 성 특정적인 행동도 손아래형제에게 영향을 주어 성역할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아래 형제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이러한 손위 형제의 성별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손위형제의 성별에 따른 손아래형제의 성역할정형화 양상에 대한 연구가 일관된 결과를 보인 것은 아니다. 이성 형제를 가진 여아들이 이성 형제가 없는 여아들보다 더욱 성정형화된 태도를 보임이 교과목 선호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Lawrie & Brown, 1992). 또한 최보가(1983)의 연구에서는 형제구성과 성역할 발달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형제의 성별이라는 구조적 요인만을 살펴보는데서 벗어나 형제간의 질적인 관계도 살펴보았다. 형제관계와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형제의 출생순위나 성별 등 구조적 요인만을 살펴본 적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제관계는 형제의 수, 출생 순위, 성 구성, 연령 차이 등 형제자매관계의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심리적인 상호작용 등 질적인 관계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Lamke, Bell과 Murphy(1980)도 양성성 발달 연구를 통해서 형제간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Furman과 Buhrmester(1985)는 형제관계에는 온정/친밀성(애정, 친사회적 행동, 친밀성, 온정성), 갈등(갈등, 논쟁성, 적대감), 상대적 지위/권력(지배성, 양육성), 경쟁심(질투, 경쟁)의 네 가지 주요 차원들이 있다고 제시하였다(남정화, 199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형제관계의 질적인 측면 중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이 성역할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형제관계에서의 친밀감은 친사회성, 형제에 대한 애정, 동반정도, 유사성, 친밀성 등을 의미한다.

Bandura와 Walters(1963)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태도와 형제 자매간의 놀이행동이나 관찰에서 배운 것이 성역할 선호성에 크게 작용한다고 했다. 또한 형제자매가 함께 지내는 경향이 많아지고 이러한 잦은 접촉으로 인해 형제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았다. 즉 손아래형제는 손위형제와의 놀이활동을 통해 그의 가치와 태도를 모방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방의 정도는 손위형제와 활동을 함께 하는 빈도나 손위형제와 자신의 유사성 정도, 즉 손위형제에 대한 친밀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살펴본 정홍섭(1987)의 연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강할수록 부모의 성역할을 쉽게 모방한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모방의 대상에 대한 친밀감이 성역할정체감의 형성에 영향을 줌을 시사하였다. 그의 연구를 통해 성 역할은 단순히 가족 성원의 유무라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성원 간의 심리적 유대와 같은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Lamb (1978)은 남자 손위 형제가 있는 남아가 여자 손위 형제를 가진 남아의 경우보다 더 남성적이라고 하면서 형제자매가 함께 활동하며 접촉이 잦을수록 형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보았다.

가족 구성원들간의 심리적 유대감이 개인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며 대상에 대한 애정이 강할수록 모방이 쉽게 일어남을 볼 때, 형제 관계에서의 친밀감은 다른 형제의 성역할태도를 학습하여 성역할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손위형제가 손아래형제의 교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손아래 형제가 손위형제에게 느끼는 친밀감은 손아래형제의 성역할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을 남성 유형, 여성성 유형, 양성성 유형, 미분화 유형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연구하였다. 즉 개인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각각의 점수가 전체 집단의 중앙치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개인의 성 역할 유형을 결정하였다. 이때 개인의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높고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낮으면 “남성성 유형”으로,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높고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낮으면 “여성성 유형”으로, 모두 다 중앙치보다 높으면 “양성성 유형”, 그리고 모두 다 낮으면 “미분화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Bem에 의해 심리적 양성성이 건강한 개인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양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심리적 양성성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한 중앙치반분법이 실제로 양성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있다. 연구들은 개인의 성역할정체감을 나타내는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치는 표본을 어느 집단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중앙치반분법에 의해 개인의 성역할정체감을 분류하는 것은 표본의 특성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Pedhazur & Tetenbaum, 1979; Sedney, 1981). 이미숙(1992)은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성역할정체감이 연구들마다 다르게 분류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중앙치반분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중앙치반분법에 의한 개인의 성역할유형 규정은 개인의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정보를 감소시킨다. 남성성 유형이 여성성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분화 유형이 남성적인 특징과 여성적인 특징을 전혀 갖고있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독립적인 변인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각각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규명하는데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Bem(1975)은 남성과 여성의 바람직한 특성을 생물학적인 성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Jung의 이론에서 한 개인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고 언급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독립성을 주장했다. Bakan 역시 작용감과 유대감은 모든 유기체가 공통으로 갖고있는 특성으로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라고 하면서 (정홍섭, 1987) 남성성과 여성성은 독립적인 특성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Bem의 제안대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두 개의 개별적인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중앙치반분법을 사용하는 대신 척도를 사용하여 신출한 각각의 점수를 개인이 사회에서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라고 규정하는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형제관계가 성 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형제관계에서의 성 구성과 출생 순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따라서 모방의 대상이 되는 형제에 대한 친밀감 요인은 간과한 경향이 있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을 유형화함으로써 남성성과 여성성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제의 성 구성에 대해서 모방의 대상인 형제에 대한 친밀감의 정도에 따른 여자대학생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살펴보았다. 사회화 과정에서 가족 내에서의 관계가 여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여성의 성역할정체감 형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이해는 후기 청소년기 혹은 성인 초기의 적응을 돋는 것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를 위해서 서울에 소재한 Y 대학교와 E 대학교, 그리고 지방에 소재한 J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092부가 회수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손위 형제가 둘 이상 있거나 손아래 형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조사대상자 이외의 다른 형제가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자신 이외에 하나의 손위형제만 있는 경우에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두 형제 중 손아래 형제인 여자 대학생의 설문지는 175부에 해당했다. 그 중 무응답치가 있는 설문은 제외한 후 남은 161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31명(19.3%), 2학년 48명(29.8%), 3학년 38명(23.6%), 그리고 4학년 44명(27.3%)이며, 이들의 연령은 18세부터 27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20.76세였다. 연구대상자의 손위형제의 성별은 남자 손위형제가 85명(52.8%)이며 여자 손위형제가 76명(47.2%)이다. 또한 손위형제와의 연령차를 보면 1-2세 차이가 103명(64.0%), 3-4세 차이가 51명(31.7%), 그리고 5세 이상의 차이가 7명(4.3%)이다.

측정도구

성역할정체감 측정도구

성역할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정진경(1990)의 한국성역할검사(KSRI)를 사용하였다. 한국성역할검사는 Bem의 양성성이론에 입각하여 고안된 성역할검사 제작방식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2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Likert식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토대로 측정한 내적 일관성신뢰도계수는 남성성 .89, 여성성 .84,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77로 나타났다.

형제관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형제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Furman과 Buhrmester(1985)가 제작한 Sibl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SRQ)를 송현정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온정/친밀감 영역의 내적일관성신뢰도계수는 .94였다.

결과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Bem의 양성성이론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독립적인 특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친밀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에 의하면,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본 Bem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은 남성성과 .24, 여성성과 .21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이 여성성보다 남성성과 다소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표 1. 남성성, 여성성과 친밀감 점수와의 상관관계

	남성성	여성성
여성성	.11	
친밀감	.24**	.21**

** $p < .01$

(1998)이 박영애(1995)의 요인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수정한 형제관계척도를 사용하였다. 형제관계척도는 총 22문항으로 온정/친밀감, 갈등, 상대적 지위/권력, 경쟁의식의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하위 영역 중 온정/친밀감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여 손아래 형제가 손위형제에 대해 가지는 친밀감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온정/친밀감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수는 8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자신이 느끼는 친밀감이 정도가 높음을 의

것은, 개인의 전반적인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남성성이 형제관계영역에서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을 보인다.

손위형제의 성별과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에 따른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친밀감 고저 집단의 구분은 남자손위형제와의 친밀감점을 수를 상, 하위 30%를 기준으로 29점 이상과 20점 이하로 구분하였으며, 여자손위형제와의 친밀감 고저 집단도 남자손위형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32점 이상과 24점 이하로 구분하였다. 전체

표 2. 윗형제 성별과 친밀감 집단으로 본 남성성과 여성성의 평균점수

집단	남성성		여성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자 손위 형제				
친밀감 고(N=26)	90.88	13.76	92.50	11.23
친밀감 저(N=31)	77.77	13.85	88.23	10.39
여자 손위 형제				
친밀감 고(N=30)	82.23	16.36	92.80	16.47
친밀감 저(N=28)	79.86	9.73	88.36	10.98

남자손위형제 집단의 사례수는 85명으로 손위형제와의 친밀감 평균점수는 23.85($SD = 7.48$)이며, 전체 여자손위형제 집단의 사례수는 76명으로 친밀감 평균점수는 27.99($SD = 6.39$)였다. 변량분석결과,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 모두에서 손위형제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여성성 점수에서 손위형제성별과 친밀감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성에 있어서는 손위형제성별과 친밀감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F(1,111) = 4.40, p < .05$) 남성성 점수에서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에 따른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111) = 9.16, p < .01$).

그러나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남성성에 대한 친밀감과 손위형제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R^2 변화량은 .01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도출되었으며($F(1,157) = 1.57$) 여성성에 대한 손위형제의 성별과 친밀감의 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손위형제의 성별과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의 고저에 따른 집단별 남성성과 여성성의 평균점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남성성 점수는 손위형제가 남자이며 친밀감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손위형제가 남자이며 친밀감이 낮은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성성에 있어서 각 집단간의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며($F(3,111) = 4.83, p < .01$), Tukey HSD로 사후검증을 한 결과 남자손위형제가 있고 친밀감이 높은 집단과 남자손위형제가 있고 친밀감이 낮은 집단(평균차이 = 13.11, $p < .01$), 남자손위형제가 있고 친밀감이 높은 집단과 여자손위형제가 있고 친밀감이 낮은 집단(평균차이 = 11.03, $p < .05$)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한편 여성성은 손위형제가 여자이며 친밀감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손위형제가 남자이며 친밀감이 낮은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

표 3.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예언하는 정도에 대한 단순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남자손위형제	남성성	친밀감	.70	.20	.35
	여성성	친밀감	.31	.15	.22
여자손위형제	남성성	친밀감	.26	.26	.12
	여성성	친밀감	.39	.24	.19

* $p < .05$ ** $p < .01$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이 여자대학생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손위형제의 성별로 구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우선, 남자손위형제가 있는 집단에서의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예언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친밀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남성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 여자대학생 집단에 있어서 남자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이 남성성을 13% 정도 예언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F(1,83)=11.82, p<.01$). 또한 남자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은 여자대학생 집단의 여성성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F(1,83)=4.05, p<.05$), 그 설명량은 약 5% 정도였다.

한편, 여자손위형제가 있는 집단에서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이 여자대학생 집단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예언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남성성과 여성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두 번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친밀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자손위형제가 있는 여자대학생 집단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이 설명하는 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가정 내에서의 형제관계와 여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역할정체감 형성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효율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손위 형제의 성별이

그 자체로는 남성성과 여성성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Laosa와 Brophy(1972)나 Gandy(1973)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는 성 역할 정체감의 형성에 있어서 형제의 성별과 같은 구조적 요인보다는 형제와의 친밀감 정도나 상호작용 빈도 등과 같은 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형제의 성별과 성 역할 정체감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던 점도 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아래 여자대학생의 손위남자 형제와의 친밀감 정도에 따라 남성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성에 대해서도 친밀감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이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발달에 있어서 이성 형제의 영향이 크게 미침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다. Lamke, Bell과 Murphy(1980)는 양성성 발달 연구에서 여성에게는 오빠가, 남성에게는 누나와의 친밀감이 남성성과 여성성 발달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이성 손위형제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오빠와의 친밀감이 여자 대학생의 남성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사회학습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자 손위형제와의 상호작용은 여자 손아래형제로 하여금 남성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손위형제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이 높을수록 빈번하게 일어나며 따라서 모방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상에 대한 애정이 강할수록 동일시가 많이 일어난다는 정홍섭(198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남자손위 형제는 여자 손아래형

제보다 높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따라서 오빠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남성성이 빌랄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남자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손아래형제의 여성성 역시 높아지는 현상은 이 경우 여성성 형성에는 빌랄적 동일시와는 다른 기제가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성 형제가 있는 개인은 동성 형제만 있는 경우보다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이미지를 더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성 역할에 대해 더욱 민감해진다. 이성 형제의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차이를 확인하게 보게되고 자신에게 있는 성 특정적인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 장면에서의 연구에서 Brutsaert(1999)는 남녀 공학의 여학생들이 여학교의 여학생들보다 스스로를 더욱 여성적이라고 본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성 형제로 인해 자신의 성에 적합한 성 역할을 빌랄시키는 이러한 현상은 탈동일시(de-identification)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립하고 형제와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다른 형제와 차별화하는 현상이다(Schachter et al., 1976; Sulloway, 1996). 이러한 현상은 이성형제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형제와는 다른, 혹은 형제에게 나타나지 않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임으로써 서로를 보완하기도 하며 형제관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서적으로 친밀할수록 형제 구조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McHale, Updegraff, Helms-Erikson, 그리고 Crouter (2001)의 연구에서도 형제관계에서의 탈동일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이 높은 여자 손아래형제의 경우, 남성성

빌랄과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여성스러움을 더욱 빌랄시키 형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성 형제와의 친밀감이 여성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결과를 도출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여자 손위형제가 있는 여자대학생의 경우 형제와의 친밀감에 따른 남성성, 여성성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대학생의 경우 동성 형제와의 친밀감은 성역할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의 측면에서 손위형제와의 친밀감이 높은 경우 손위형제의 태도나 행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 손위형제가 여자 손아래형제보다 높은 여성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손위형제의 태도나 행동을 모방한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성 손위형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이 손아래형제보다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손위형제의 남성성이 여자 손아래형제의 남성성 보다 높았을 것이다. 따라서 오빠와의 친밀감을 통해 남성성을 학습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동성 손위형제의 경우에는 성별이 같은 이유로, 손위형제의 태도가 손아래형제의 태도보다 반드시 더 성별에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음을 예측할 수 있다. 남자형제가 없는 장녀에게서 자율의 요구가 강하다는 연구(김양순, 1973)나 남동생을 둔 여아를 제외한 첫째의 성취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연구(홍연림, 1999) 등을 통해 오히려 본 연구에서 여자 손위형제가 높은 남성성을 가졌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손위형제가 반드시 전형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여자 손위형제의 여성성이 여자 손아래형제의 여성성보다 반드시 높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언니와의 친밀감이 여성성을 학습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성별이 동일한 형제와의 친밀감은 성역할과 관련된 형제의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손아래형제의 성역할정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자대학생의 형제 관계가 성역할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본 연구는 상담에 있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성역할정체감의 형성에 있어서 형제관계의 구조적 요인보다 형제 내의 질적인 관계가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해주는 본 연구는 형제간 정서적 경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형제 서열이나 형제 성별 등을 탐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과 더불어 형제 관계 내에서 내담자가 경험한 정서적 측면을 탐색하는 것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경우 이성 형제와의 친밀감이 높은 경우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발달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신과 상이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는 타인의 태도를 배우거나 스스로의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역할정체감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지 못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의 경우 내담자의 폭넓은 대인 관계를 돋는 것이 상담의 한 개입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손위 형제의 성별과 함께 손위 형제의 성역할정체감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제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형제관계와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남자 형제는 높은 남성성을, 여자 형제는 높은 여성성을 가졌을 것이라 상정하였다. 따라서 남자 형제를 동일시하는 경우 남성성이, 여자 형제를 동일시하는 경우 여성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결과들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의 남자 형제가 참여자보다 반드시 남성성이 높지만은 않을 것이며 여자 형제가 반드시 여성성이 높지도 않을 것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의 성별과 형제의 성별이 동일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형제의 성별 자체로 모방하는 성역할정체감을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손위형제의 성역할정체감이 손아래 형제의 성역할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형제간의 친밀감과 성역할정체감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는 못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성역할정체감이 형제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제 3의 변인이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성역할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서 형제관계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 성장기의 가족 구성원,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부모의 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형제간의 친밀감에도 가정의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환경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여자 대학생으로 한정시켰으며 따라서 남자 손위형제와 여자 손위형제의 경우 친밀감이 성역할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양상의 차이가 동성 형제와 이성 형제의 차이인지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의 차이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상희 (1985). 학령전 아동의 형제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순 (1973). 형제 자매 유무와 개인의 성격적 욕구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영희 (1990). 한국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련, 장휘숙 (1987). 발달심리학. 서울 : 박영사.
- 남정화 (1998). 형제자매관계의 특성과 대인관계 성향 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태도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현정 (1998).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장애아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가효 (1994).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5(1), 127-144
- 유영주 (1989).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이미숙 (1992). 성역할정체감의 연구방법 및 관련 변수 고찰. 생활과학연구논집, 12(1), 61-89. 서울: 가톨릭대학교.
- 이재창, 유계식 (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 259-288.
- 임재련 (1988). 청소년 자아 개념의 발달적 특성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소영 (1985). 의식향상 훈련이 여성의 양성공존 성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희 (2002). 흥미유형 및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의 타협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진경 (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5, 82-92.
- 정홍섭 (1987). 가족관계가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논문집. 22. 395-419. 부산여자대학교
- 최보가 (1983). 가정환경 요인이 아동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성희 (2001). 기혼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아 (1988).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연림 (1999). 형제지위변인과 형제관계가 아동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ramovitch, R., Corter, C., & Lando, B. (1979). Sibling interaction in the home. *Child Development*, 50, 997-1003.
- Antill, J. K. & Cunningham, J. D. (1979). Self-esteem as a function of masculinity in both sex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 783-785.
- Azmitia, M., & Hesser, J. (1993). Why siblings are important agents of cognitive development: A comparison of sibling and peers. *Child Development*, 64, 430-444.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Chicago: Rand McNally.
- Bandura, A. & Walters, R. (1963). *Social Learning &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aucom, D. H. & Danker-Brown, P. (1984). Sex role identity and sex-stereotyped tasks in the development of learned helplessness in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422-430.
- Bem, S. L. (1975). Sex-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34-643.
- Block, J. H., (1973). Conceptions of sex-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Brutsaert, H. (1999). Coeducation and Gender Identity Form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secondary schools in Belgiu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0(3), 343-353.
- Furman, W. & Buhrmester, D. (1985b).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qualities of their sibling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6, 448-461.
- Ganday, L. G. (1973). Birth Order and Vocational Interest. *Developmental Psychology*, 9, 406-410.
- Hodges, W. H (1961). *Personality factor in objective behavior*. N. Y. : John Wiley and sons.
- Hall, C. S & Lindzey, G. (1965). *Theory of Personality*. N. Y. : John Wiley and sons.
- Hilgenkamp, K. D. & Livingston, M. M. (2002). Tomboys, masculine characteristics, and self-ratings of confidence in career success. *Psychological Report*, 90, 743-9.
- Kohlberg, L. (1966). A cognitive-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E. Maccoby(Eds.),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mb, M. E. (1978). The development of sibling relationships in fancy :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49, 1189-1196.
- Lamke, L. K., Bell, N. J. & Murphy, C. (1980). Sibling Constellation and Androgynous Sex Role Development. *Journal of Psychology*, 105, 139-144.
- Laosa, L. M. & Brophy, J. E. (1972). Effects of Sex and Birth Order on Sex-role Development and Intelligence among Kindergarte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6(3), 409-415.
- Lawrie, L., & Brown, R. (1992). Sex stereotypes, school subject preferences and career aspirations as a function of single/mixed sex schooling and presence/absence of an opposite-sex sibl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132-138.
- McHale, S. M., Updegraff, K. A., Helms-Erikson, H. & Crouter, A. C. (2001). Sibling influences on gender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7, 115-125.
- Mischel, W. (1966). A social learning view of sex differences in behavior. In E. E. Maccoby(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pp. 57-81).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edhazur, E. J. & Tettenbaum, T. J. (1979). Bem Sex

- Role Inventory: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ritiqu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996-1016.
- Rust, J., Golombok, S., Hines, M., Johnston, K. & Golding, J. (2000). The role of brothers and sisters in the gender development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7, 292-303.
- Sanfilipo, M. P. (1994). Masculinity, femininity, and subjective experiences of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0, 144-157.
- Schachter, E. F., Shore, E., Feldman-Rotman, S., Marquis, R. E., & Campbell, S. (1976). Sibling deidentification and elab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2, 418-427.
- Sedney, M. A. (1981). Comments on median split procedures for scoring androgyny measures, *Sex Roles*, 7(2), 217-222.
- Serbin, L. A., Powlishta, K. K. & Gulco, J. (1993). The development of sex typing in middle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8, 1-99.
-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J. (1975). Ratings of self &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29-39.
- Sulloway, F. J. (1996). *Born to Rebel; Birth order, family dynamics, and creative lives*. NY: Vintage.
- Whitely, B. E. (1983). Sex-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65-778.
- Whitely, B. E. (1985). Sex-role orientation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eta-analyses. *Sex-Roles*, 12, 207-225.
- Wolfe, L. K., & Betz, N. E. (1981). Traditionality of choice in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43-55.

원고 접수일 : 2003. 6.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3. 8. 30
제재결정일 : 2003. 11. 28



The Relation among Older Sibling's Sex, Intimacy and Sex Role Identity in Female Undergraduates: the case of second-born female

Min-Jeong Kim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ibling relationship on sex role identity in female undergraduates focusing on older sibling's sex and sibling intimacy. The subjects were second-born females with only one sibling, except themselves. A total of 161 subjects(85 female graduates with male older sibling & 76 with female older sibling) participated in this study. Sibling relationship scale was used to obtain a measure sibling intimacy. Sex role identity was measured by Korea Sex Role Inventory(KSRI), a Korean version of Bem's(1975) Sex Role Inventory(BSRI).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ere a significant main effect of sibling intimacy an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f older sibling's sex and intimacy on masculinity.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older sibling's sex and intimacy on femininity. Sibling intimacy had significant effects on both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male sibling group whereas no effect was found in female sibling group.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intimacy with opposite-sex sibling effects positively on the development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female undergraduates.

Key Words : female undergraduate, sibling sex, sibling intimacy, sex role identity